

한국공항(주) 제주지점

명품 항공기 조업서비스 비결은 '안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내에 있는 한국공항(주) 제주지점은 국내외 항공기에 지상조업, 급유조업, 화물조업 등을 지원하는 회사다. 1972년 10월 개설 이래 39년간 동종업계에서 선두위치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이곳은 서비스는 물론 안전관리 역량에서도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기업이다. 실제 외국 귀빈이 탄 비행기나 정부 주요 인사가 탑승한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 할 때는 항상 우선 지정을 받아 서비스를 펼치고 있을 정도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항공기 조업분야의 모범사례로 우뚝 선 이곳 현장을 찾아 그들만의 특별한 안전활동을 살펴봤다.



까다로운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재해 일귀

이곳이 하는 일은 지상조업, 급유조업, 화물조업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상조업은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를 유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항공기에 물류 상·하역, 객실청소, 오물수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급유조업은 항공유를 수송, 저장,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항공기에 급유를 하고, 각종 급유조업장비를 점검·정비하는 일이다. 아울러 화물조업은 화물을 접수해 행선지별로 분류를 하고, 이를 창고에서 입출하하는 일이다.

즉 이곳이 하는 일은 사실상 항공기가 지상에 있는 모든 순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업무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중장비도 수십여종에 이르며, 각종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도 상당하다. 이런 점을 볼 때 이곳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무재해 5배수를 넘어 6배수에 도전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조업준비 돌보여

항공기 도착 20분전, 해당 항공기에 대한 책임조업조 조원들이 매섭게 몰아치는 바닷바람을 뚫고 활주로에 정위치 한다. 이어 이들은 메인 데스크와 지속적으로 항공기 정보를 교류하며 항공기를 맞을 준비를 한다.

안전체조를 시작으로 작업자 서로간 복장상태 등에 대한 안전지적확인 복명복창을 실시하고, 최종 장비점검을 한 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기상태를 유지한다.

비행기가 도착한 이후의 대응태세는 더욱 꼼꼼하다. 작업자들은 항공기 유도, 화물하역 등의 조업을 하며 매순간 지적확인 복명복창을 실시하고, 안전순찰자는 작업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진행시킨다. 실로 안전중심 작업절차의 모범사례라 할 만하다.



안전의 밑바탕은 교육과 관리

이곳에선 안전과 관련된 교육과정만 10여개가 있다. 월간 안전보건교육, 계절별 안전교육, 특별수송대책교육, 안전관리과정교육, 사고사례 예방교육, 외부 강사 초청 교육 등이 그것이다.

교육을 통해 확고한 안전의식이 다져져야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이곳의 운영방침이다.

교육과 더불어 이곳이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장비를 작동하는 직원'과 '장비'에 대한 관리다. 화물 하역과 급유 등의 작업이 하루에도 수십여차례 이루어지는 만큼 이곳에선 중장비의 사용이 매우 빈번하다. 때문에 자칫 장비 오작동이나 고장 등이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곳은 정기적으로 조업장비 체크리스트에 의한 치밀한 장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출근조별 심신상태를 매일 조업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다. 일례로 심신상태 점검에서 음주상태가 확인되거나 직원의 기정에 우환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이곳은 즉시 귀가조치를 시키고 있다.

일일일성(一日一省) 생활화

이곳에는 독창적인 안전활동도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일일성'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하루에 하나씩 반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안전활동은 모든 근로자들이 작업 중 실수 또는 부주의로 안전을 무시한 행동을 했을 시 이를 솔직하게 작업일지에 적는 안전활동이다.

이 안전활동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불안전행동을 반성함으로써 안전을 중시하게끔 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관리자들은 일일일성으로 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다만 관리자들은 일일일성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분석해 사전에 대응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 일일일성 안전활동은 약 8년전 제주지점에서 시작돼 현재는 전국 한국공항 모든 지점에서 실시되고 있다.

환경이 즐거울 때 작업이 안전하다


한국공항(주)의 김홍식 대표이사는 취임과 동시에 제주지점을 포함해 전 지점의 오래된 비품을 모두 교환해 주었다. 이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없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나아가 우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때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도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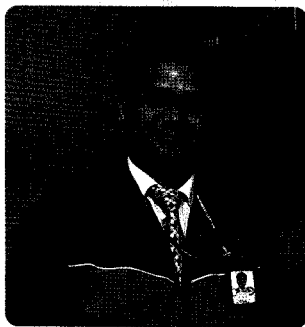
이런 대표이사의 믿음은 제주지점에서도 이어졌다. 조용학 제주지점장은 시설 개선은 물론 축구반, 등산반, 낚시반 등의 취미반을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직원들이 즐겁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런 경영진의 믿음에 보답코자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스스로 안전하는 일터 만들 것

가히 빈틈이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곳 관리자들은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말한다.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활동에 나서는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올해부터 근로자를 중심으로 위협요인 사전발굴활동을 펼치는 한편 주간 단위로 안전품질테마를 선정·운영해 안전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있다.

한국공항(주) 제주지점의 안전 목표는 무재해 6배수 달성(2011년 6월 5일)이다. 현재의 조직적인 관리체계에 자율적인 안전문화까지 조성된다면 이 목표는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용학 지점장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본'

지점을 관리함에 있어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 회사는 제주공항 내 항공기 조업사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규 항공사나 조업사가 따라 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이들 역시 잘못된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방법으로 기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안전장구 착용, 작업 절차 준수 등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면 타 회사들 또한 이를 지킬 것이고,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기 조업사 전체의 안전역량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타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안전관리를 펼쳐나가겠습니다.